

# 괴뢰패당은 멍텅구리의 입덕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12일 괴뢰국방부 대변인 김민석이라는 멍텅구리가 주제넘게도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감히 모독하는 미친 소리를 쳤ched다.

해빛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두더지처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등으로 게바라나와 더러운 주둥이를 우물거리며 내뿜는 소리가 너무 허망하여 듣는 사람들이 귀가 더럽혀질 지경이다.

명색이 그래도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놈이 그 무슨 정례기자회견이라는데 나라이 제놈들이 조작해낸 《북무인기사건》을 두고 또다시 횡설수설하다 못해 《계속 거짓말하는 력사퇴행적인 나라》,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니 뭐니 하면서 이 세상 가장 자주적이며 인민적인 존엄높은 우리의 신성한 국가주권까지 걸고놓았는데 지금 내외가 김민석놈의 어처구니없는 정신착란적개나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얼마나 히스레리적망발을 내뿜었으면 우리에 대한 시비질에 이골이 난 괴뢰보수언론들까지 《사석에서나 할 수 있는 소리를 어떻게 공식기자회견에서 했는지 리해가 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양치기소년의 오유〉에 빠진것 같다.》, 《북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정신나간 발언》이라고 하며 죽이려 비난해나섰었다.

괴뢰패당이 지금까지 우리 체제를 헐뜯는 망발을 수없이 지껄었지만 이번처럼 험악한 악다구니를 쳤치는 처음이다.

남조선에서 이른바 대변인이라고 나서는 눈치고 변변한자 없어 외국행각에 따라나가 성추행을 하여 개방신을 하는가 하면 거짓과 기만을 일삼

으며 첩면괴하게 놀아대어 비난조소의 대상으로 되기 일쑤이지만 특히 김민석놈이 말짱하는 교락사나를 보면 그야말로 미물보다도 못한 버벌치같은 놈이다.

사실 미국의 제일 더러운 곳만 활는 식민지노복중에서도 특등노복이 괴뢰국방부이다.

자기의 군통수권조차 가지지 못하고 수십년을 미국의 출개로 살아온것도 모자라 상전이 넘쳐주겠다는 《작전지휘권》마저 안받겠다고 양양질하며 막대한 돈을 섬겨바쳐서라도 그 사타구니에 더 바삭 들어붙어있어야만 마을놈은 미국의 고용군이 바로 괴뢰군이다.

이 지구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렇게 가련한 해적비군대는 없으며 그런 오합지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없다.

그 주제에 낮뜨거우졸도 모르고 《국방부》 대변인이랍시고 기자회견을 불러대며 말도 되지 않는 험담질을 마구 해대고있으니 과연 한방망이 얻어맞지 못해 몸살난 놈이 분명하다.

박근혜같은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악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씨준 굴이나 주철주철대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없고 불쌍하기 지없다.

김민석놈의 이번 악담은 물에 빠진 자 지푸라기 잡는 격으로 닥쳐드는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필사적으로 허등대는 박근혜패당의 물갈을 집중적으로 드러낸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라없는 망국노의 설움을 삼키지 않으면 안되었던것도 외세에게 국권과 령토를 송두리채 빼앗겼기때문이다.

세월은 퍼그나 흘렀지만 아직도 주권없는 세상이 남조선이다.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대통령》이 미국상전을 할애비로 섬기고 정치인들이 저마다 미국의 눈에 들기 위해 미국행을 뻔질나게 하는것이 하나의 정치풍토로 되고있다. 미

국의 지배와 보이지 않는 감시의 그물속에서 살아야 하고 미국의 입김에 따라 《대통령선지》 결과도, 정치의 향방도 좌우되는 슬픈 지역이 남조선이라는것은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

군대가 있어도 군에 대한 통수권을 남에게 빼앗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현대판 식민지도, 《남이 사는 내 령토》라고 한탄하는 곳도 바로 남조선임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더우기 참담한것은 외세에 얹매어 비굴하게 살면서도 수척도 느낄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받기는 남조선집권자들의 노예굴종의식이야.

침미사대굴종의식이 골수

지금 박근혜패당은 전대미문의 려객선침몰참사 등으로 해어날수 없는 최악의 위기에 몰려있다.

《청와대》로 무섭게 육박하는 민심의 분노를 피해보기 위해 《4월혁신헌설》, 《북무인기》 광대국을 련속 연출하였지만 오히려 불는 불에 키질하는 격이 되고 6월초에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에서도 대참패는 불보듯 뻔한 일로 되고있다.

더우기 성대하게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통해 과시된 우리의 군사적위력앞에,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결정체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에서 메아리치는 아이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에 가장 혼비백산해있는것이 미국의 전쟁머슴군, 반인민적악정의 장본인인 박근혜패당이다.

국도의 공포와 불만에 사로잡힌 박근혜와 그 졸개들이 사면초가의 신세에서 벗어나보려고 미친개마냥 짖어대며 우리를 걸고들어 기어코 전쟁이라도 일으켜볼 심산인것 같은데 이야말로 쇠를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광란이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화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버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유일초대국》이라고 으시대는 강대국 미국이 이처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는 우리를 향해 치마두른 총계집이 지휘하는 핫바지무리들이 감히 돌을 던지려 하는것이야말로 세상 웃기는 일이다.

괴뢰국방부가 북에서 《큰 한방》을 준비하고있다는니 뭐니 하고 계속

알려진것처럼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참사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이 빚어낸 인재이고 판재이다.

남조선당국은 사고발생시 똑바른 구조대책 하나 세우지 않아 얼마든지 살려낼수 있는 수백명의 나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을 죽음으로 떠밀었다.

비행기와 함선, 해상경찰 등 수많은 구조장비들과 인

나불거리고있는데 그들이야말로 핵몽둥이찔질을 부르는 열간이들이다.

김민석놈이 《나라가 없어져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나발질하였지만 민심의 저주속에 지옥으로 침몰하는 남조선의 초상설상풍경과 위대한 인민사랑정치, 후대사랑정치로 온 나라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리상향을 향해 힘차게 속구쳐오르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모습을 대조해볼 때 과연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나라》가 어디이며 없어져야 할 《정권》은 누구인가 하는것이 명백하다.

김민석과 같은 팔사둥이의 입질이 조래할 불벼락으로 없어지게 될것이야말로 남조선의 《청와대》이고 식민지체제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천주에 용남 못할 대역죄를 면일 저지르고있는 괴뢰역적패당과 이제ხ는 말로 할 때가 지났으며 오직 무자비한 징벌만이 남아있을뿐이다.

남녘의 민심도 온 남조선땅을 초상집으로 만들어놓은것도 모자라 백성들의 비애와 원성에는 아랑곳없이 북남대결의 극대화로 더 큰 재앙을 몰아오고있는 박근혜와 그 졸개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당장 끌어내리라고 절규하고있다.

박근혜는 조금이나마 목숨을 연명하러거든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샅대질을 해낸 김민석놈과 그 조종자들을 이제라도 당장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괴뢰국방부는 물론 《청와대》도 무사할수 없게 될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주제 103 (2014) 년 5월 13일  
평 양

함으로써 세상사람들로부터 《인간이 아니다.》, 《살인마》라는 오명만 뒤집어졌다.

저 멀리 러시아나 태평양의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한것도 아니고 남조선의 진도 앞바다, 북지가 해변 보이는 앞은 해안에 빠진 수백명의 사람들중 단 한명도 구원하지 못한 이런 무능하고 잔인한 사회를 가리켜 나라라고 할수 있겠는가.

지금 한한한시에 수백명의 아이들이 비롯한 승객들이 바다속에 수장당한 대참사를 놓고 유가족들과 각계층 남조선인민들이 슬픔과 분노에 차서 이렇게 웨치고있다.

《이것이 나라인가. 우리를 버린 이 사회, 나도 이 사회를 버리겠다.》, 《이건 나라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 정녕 나라라면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정부〉라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단언컨대 박근혜 〈정부〉는 더이상 〈정부〉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자기 땅에서 터져나오는 이 울분에 찬 민심의 웨침을 들어야 한다.

과연 나라 아닌 《나라》, 없어져야 할 《정부》는 누구인가를.

본사기자 김 철 호

### 수백명의 아이들을 수장시켜놓고도

치마두른 남조선의 대결광이 수하군부장패를 내세워 선군으로 위용벌치는 우리 공화국을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했는데 과연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도 아이들의 작은 가슴을 진찰하면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얼마 전 려객선침몰사고로 순간에 목숨을 잃은 남조선의 수많은 학생들이 아이들을 나라의 향으로 떠받들며 미래를 소중히 여기는 북에서 태어났다면 설사 자연재해로 물에 빠져도 꿈많은 앞날을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참변을 당하지 않았을것이라는 생각이이다.

그러나 그들은 돈밖에 모르는 메마른 인정의 풍토에서 태어나고 《정부》를 잘 못 만난탓에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다.

무능과 무대응으로 수백명의 아이들을 수장시켜놓고도

눈물 한방울없이 책임회피만 하는 박근혜패당의 파렴치한 처사에 파죽을 이은 동족의 한 성원으로서 정말 이가 갈린다. 정말 미래가 없는 암울한 남조선사회이다.

동족대결과 반인민적악정만 일삼는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과 겨레를 위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악의 《정권》이다.

육류이동병원의사 김 옥 희

### 당장 목대를 부러뜨리겠다

괴뢰국방부 대변인이라고 하는 김민석역도가 우리 공화국을 두고 《나라 아닌 나라》,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담질을 거러잡없이 해댔다니 도저히 참을수 없다.

정말이지 어제날 총을 잡았던 이 손이 펜대를 쥔채 주먹으로 굴어져 부르르 떨린다.

그래 머저리같은 김민석이 과연 우리 공화국을 알면 얼마나 알고 이마위 개소리를 내는가.

자주로 존엄높아 세상사람 누구나 부러워하는 나라, 일일단결의 대화원속에 사람들모두가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제도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올해 겨울철에 마식령스키장에서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행복의 웃음꽃을 마음껏 피우면서 내가는 내 나라, 이 제도의 고마움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어디서나 행복의 웃음소리를 울려 퍼지는 이 제도, 우리 인민모두가 자기의 심장보다 더 소중히 간직할 내 나라를 사람갈지도 않은 김민석놈이 어찌구 저찌구 했더니 눈앞에 나타난 당장에 목대를 부러뜨리고싶은 심정이다.

정신이 나가서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마구 쳤쳐대는 이마위 사람갈지 않는 놈은 당장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위대한 앞날을 마음껏 설계하고있는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일단 명령만 떨어지면 펜대를 총대로 바꿔잡고 대결에 환장한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반공화국대결만 일삼는 청와대의 치마두른 독자에게 병사시절의 그 기세, 그 본패를 단단히 보여주겠다.

평양건축종합대학 학생 유 광 민

### 불의와 독재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독재 《정권》은 결코 오래갈수 없다.

세월의 이기에 덮여 모든것이 삭막해져도 우리 겨레는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광주인민봉기를 잊지 못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34년전에 있었던 광주인민봉기는 파쇼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반파쇼민주항쟁이었으며 광주시민의 절대다수가 군사파쇼당과 맞서 결사항전을 벌린 대중적인 무장봉기였다.

《유신》독재자가 제거된 후 미국의 조종밑에 새로 등장한 전두환군부파쑸당은 날로 높아가는 민주화의 기운을 총칼로 짓눌러버리기 위하여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확대실시하고 도처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을 감행하였다.

이에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은 새로운 군사파쇼독재의 수립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났다. 그 앞장에는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서있었다.

군사파쇼당당이 적수공권의 시위군중을 향해 발포를 하고 탄압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자 광주시민들은 손에 땅장을 들고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면서 망장과 비행기로 중무장한 파쇼무리한들과 견결히 맞서 싸웠다.

투쟁의 규모와 완강성, 격렬성에 있어서 남조선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영웅적광주인민봉기는 군부독재세력의 야만적인 파쇼폭압통치를 끝장내고 민주화된 세세상,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세세상을 안아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결사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통치가 지속되고있다.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정적군사적지배를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남조선통치배들을 동족대결과 북침전쟁 도발로 부추기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있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떠벌이며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에속하를 더욱 심화시키고 《체제통일》을 부르짖으며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의 극단으로 몰아가고있다.

현 보수집권세력의 현태판 《유신》과 쏜통짜와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은 인권의 불모지, 최악의 민생파탄지역으로 화하였다.

얼마전에도 매국배측에 환장한 현 집권자는 려객선침몰사고로 슬픔에 잠겨있는 인민들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물을 행각한 미국상전에게 매달리면서 갖은 험담으로 동족을 헐뜯다 못해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권을 구걸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간 《세월》호참사는 민주와 인권, 사람들의 목숨이 참혹하게 짓밟히는 남조선의 암흑상을 날날이고말하고있으며 그 장본인은 바로 인민들의 생명제산을 아랑곳없이 파쇼와 동족대결에만 미쳐달려는 박근혜 《정권》이다. 현실은 침략적인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있는 한 광둥항쟁용사들이 바라던 자주, 민주, 통일념원은 결코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주고있다.

불의와 독재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독재 《정권》은 결코 오래갈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반박근혜, 반 《정부》투쟁의 불길은 불의와 매국, 독재를 물사하고 광주의 용사들이 바라던 자주화되고 민주화된 세세상을 기어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해외동포들

박근혜는 《한반도신평의프로세스》를 처음 꺼내들었을 때 말로나마 자기가 집권하면 《신평의프로세스》와 대화를 《정경분리의 원칙》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갈것이라고 하였으며 《대선》후보시절에는 북남공동선언을 《인정》하였다는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았던 일도 있다.

그러나 취임의 말을 올리기 바쁘게 《한반도신평의프로세스》가 《결코 유화책이 아니며》 《〈한〉 미동맹에 기초한 군사적억력을 바탕으로 한것》

이라느니, 《북의 도발에 대해 〈한〉 미공조로 단호히 대처》 하겠단느니 하면서 대결적정제를 드러냈다.

그가 집권하자마자 미국과 야합하여 벌려놓은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은 《한반도신평의프로세스》라는것이 북남사이에서 신뢰를 도모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불신을 더욱더 조장하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동족대결각본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한반도신평의프로세스》, 《대결프로세스》, 《실망프로세스》라고 격분에 차서 야유, 조소하였었다.

박근혜는 《홍수통일》의 허황

한 망상에 들며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갔다.

그가 제 집기둥이 무너져가는 것은 돌보지도 않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치며 입이 아즈게 고아번없는 동족에 대한 비방중상이었고 공화국의 핵을 걸고들며 《국제공조》를 웨친것뿐이었다. 박근혜는 최근에도 멀리 유럽땅에 가서까지 《통일의 전도사》로 자처해나서며 《자유민주주의

내놓았으며 이것이야말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서 온 민족의 일치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외국들을 돌아치며 《홍수통일》야망을 늘어놓았으니 과연 온전한 정신이라 할수 있겠는가.

바로부터 집안에 불화가 생기면 집사람들끼리 조용히 풀어나가는

것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서 온 민족의 일치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외국들을 돌아치며 《홍수통일》야망을 늘어놓았으니 과연 온전한 정신이라 할수 있겠는가.

바로부터 집안에 불화가 생기면 집사람들끼리 조용히 풀어나가는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은것이 바로 박근혜이며 얼마전에는 대형 려객선침몰참사로 수백명 어린이들의 목숨을 바다속에 처넣고도 뻔뻔스럽게 미국상전을 남조선땅에 끌어들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권을 에걸한 위법천만한 북침전쟁각본인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과 《대참형역제전략》 실현을 위한 공모도 한것도 다름 아닌 박근혜이다.

최근 사실은 박근혜가 체판에 와서 《통일대박》을 웨치며 민심의 이목을 끌해보려고 여러 석계 놀아대고있지만 그것은 민족의 안전과 평화적발전을 해치는 《체제통일》망상에 사로잡힌 대결광신자의 녀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력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 겨레의 지향에 역행한 독재자들의 운명은 파멸로 끝났다. 박근혜의 예비 박정희의 운명이 그것을 실증해주며 집권내내 불신과 대결을 웨치다 민족의 버림을 받은 리명박역도의 처지가 똑똑히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온 민족의 존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순

## 《체제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혀

체제하의 통일》과 《도이쉴랜드 식통일》을 력설하고 《〈한국〉 주도하의 통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망발까지 늘어놓았다.

이것이야말로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이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화해와 단합에 기초한 자주적인 평화통일이 아니라 외세를 업고 일방이 타방을 먹는 체제대결이라는것을 똑똑히 말해주고있다.

《체제통일》은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비현실적이며 그것이 조래할것은 전쟁밖에 없다. 이로부터 공화국은 이미 오래전에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사상과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량방체통일방안을

것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서 온 민족의 일치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외국들을 돌아치며 《홍수통일》야망을 늘어놓았으니 과연 온전한 정신이라 할수 있겠는가.

바로부터 집안에 불화가 생기면 집사람들끼리 조용히 풀어나가는